

2008년 6월 23일 메시지

- 세계 불가사의를 내가 다 설명했습니다. 제자들 보고 빨리 빨리 글을 쓰라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. 미국이 200년 동안 그랜드 캐년이 비가 와서 파이게 됐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. 세계과학자들이 그렇게 모릅니다. 내가 미국 갔을 때 헬기타고 한 시간 돌아다니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. 말 많이 한다고 입이 커지냐? 숨 많이 쉰다고 코가 커지냐? 본래부터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입니다. 한강도 물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데 1년에 10만 kg씩 모래를 퍼내도 한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?

- 것처럼 본래부터 그렇다고 그때 내가 발표했습니다.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화성에 물이 있다는 것도 내가 82년도에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. 옛날에 나사 본부 위원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직접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근거를 잡은 것입니다. 눈치를 챈 것입니다. 내가 확실하게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가보라고 한 것입니다. 현재 얼음이 있다고 확인되었는데 얼음이 물이 아닙니까? 책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 자꾸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. 한 개는 일본사람에게 뺏겼습니다. 원자, 분자, 소립자, 중간자, 심 그것 뺏긴 것입니다. 심까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.

- 초등학교 나와서부터, 산에서 기도할 때 다 알았습니다. 15년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.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. 과학자 되어서 무엇 합니까? 하나님 믿고 세계적인 인류 구원하는 것이 더 큼니다. 글 잘 쓰는 사람한테 자꾸 글을 쓰라고 하십시오.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. 근거를 가지고 자꾸 써야 합니다.

- 부지런히 해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. 가만히 있다고 소망이 이뤄집니까? 개인적인 소망은 쉽습니다. 개인적인 소망은 이루어져도 개인밖에 더 됩니까? 크게 해서 시대의 소망을 이뤄줘야 합니다. 그래야 세계적으로 혜택을 봅니다.

- 조은소리에 나온 구름사진 봤습니까? 청주 근방의 캠퍼스들이 나를 못 봤으니까, 내 얼굴 한번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하고 정말 똑같이 나왔습니다⁴⁸⁴⁵.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.

- 조은소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. 멋있는 글도 계속 쓰십시오. 내가 쓴 시도 다 앞날을 예언한 시인데 잘 모릅니다. 앞날에 닥치는 일을 다 쓴 것입니다.